

현대차그룹, 협력사 공급망 상생 강화... 대금지급 평균 10일

1·2차 협력사 상생협약 체결
대금지급 조건 개선·상생결제 확대
자율주행 등 교육·기술 지원 강화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AI)과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1·2·3차 협력사를 아우르는 공급망 상생 협력을 강화한다.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금융·기술·교육 지원을 확대해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 생태계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그룹은 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더블트리 호텔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1·2차 협력사들과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경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와 서강현 현대

차그룹 기획조정담당 사장 등 그룹 주요 경영진과 12개 계열사 대표, 150여개 1·2차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AI와 SDV, 자율주행,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수소에너지, 스마트팩토리 등 미래 사업 확대에 따라 협력사의 역할이 단순 부품 공급을 넘어 미래 산업을 함께 이끄는 파트너로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공급망 전반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한다. 협력사 대금은 법정 지급기한인 60일보다 훨씬 빠른 평균 10일 이내 지급하고,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역시 지급일이 단축될 수 있도록 교육과 모니터링,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상생결제시스템 활용도 확대한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신용을 기반으로 1·2·3차 협력사가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협력사들은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1차 협력사의 상생결제 실적을 평가와 인센티브에 반영해 제도 활용을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한 교육과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현대차·기아는 SDV와 전동화, 자율주행 분야 기술 전환을 지원하고 AI·소프트웨어, ESG, 탄소중립, 사이버보안 교육을 확대한다. 현대모비스는 로봇 관련 첨단 부품 협력사를 육성하고, 현대로템은 기술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현대오트모터는 AI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대위아는 수출입 인증 지원으로 협력사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힌다. 현대캐피탈은 무상 특허 제공과 청년

인력 채용 지원, 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현대제철은 동반성장펀드와 납품단가 연동제 교육을 통해 협력사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대트랜시스도 ESG 교육과 컨설팅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관리와 현장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노션은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구독료를 지원하고 기술자료임치제 운영, 입찰 탈락 업체에 대한 시안 비용 지급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강현 사장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쟁력"이라며 "전동화와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전환 과정에서 협력사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그룹의 역량을 모아 함께 성장하는 공급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한화에어로, 무인기용 항공엔진 시제 공개

항공엔진 초도시제 지상시험 착수식
독자기술 개발... 수천시간 이상 운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1사업장에서 생산된 5500파운드 터보팬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무인기용 항공엔진 시제를 처음 공개했다. 수천 시간 이상 운용 가능한 장수명 항공엔진 개발 시제가 국내에서 완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무인기 국산화와 방산 수출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일 경남 창원1사업장에서 '국산 장수명 항공엔진 초도시제 지상시험 착수식'을 열고 저피탐 무인편대기용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중고도 무인기용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과연 주도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업체들이 각종 미사일에 적용되는 단수명 항공엔진을 개발해 양산까지 진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장시간 반복 운용이 가능한 장수명 항공엔진 시제 개발은 처음이다.

이번에 공개된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은 KF-21 전투기와 연계해 정찰, 전자전,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저피탐 무인편대기에 적용될 예정이다.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은 장시간 비행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정찰하는 중고도 무인

기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두 엔진은 조립을 마친 뒤 지상 시운전에 들어간 상태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기체와 비행제어, 임무장비에 이어 항공기의 핵심 부품인 엔진까지 국내 기술로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무인기 체계 전반의 국산화 수준을 높이고 정비와 개량, 수출 과정에서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엔진은 항공기의 성능과 작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구성품이다. 주요국들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수출관리규정(EAR) 등을 통해 관련 기술 이전과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엔진을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 정비와 개량, 해당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 수출 과정에서 원 제작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기술로 개발한 KF-21, FA-50 등도 미국의 동의 없이는 수출에 제약받을 수 있다. 국산 항공기에 국산 엔진을 탑재하면 수출 승인 부담을 줄이고 방산 수출 전략을 보다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스텔스 무인기에 탑재되는 1만파운드급 터보팬 엔진과 KF-21을 포함한 차세대 전투기용 첨단항공엔진 개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항공엔진 핵심기술 확보와 소재 자립화, 제조역량 내재화, 전문인력 양성도 함께 추진한다.

김중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엔진사업팀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축적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대한민국 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LG에너지솔루션, 2분기 흑자전환 성공

매출 7.5조, 영업이익 1133억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효과로 올해 2분기 흑자 전환했다.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적자가 이어졌지만 하반기에는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출하 확대와 중저가 전기차 배터리 수요 대응을 통해 실적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7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133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이익 규모는 줄었지만 지난 1분기 2078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데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2개 분기 연속 적자 흐름에서도 벗어났다.

매출은 7조5602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4.8% 증가했다. 2분기 미국 IRA에 따른 AMPC 예상 금액은 2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제외하면 매출은 7조3193억 원, 영업손실은 1277억원이다. 특히 생산 세액 공제를 제외한 분기 매출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3년 4분기 이후 10개 분기만이다.

북미 전기차 시장 둔화와 일부 합작법인(JV) 공장의 일시 가동 중단 영향이 이어졌지만 유럽형 중저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 확대와 46식리튬을 포함한 원통형 배터리 출하 증가,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물량 확대가 실적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실적은 ESS와 중저가 전기차 배터리 물량 확대 여부가 좌우할 전망이다. 북미 ESS 신규 생산라인 가동으로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시장에서는 고전압 미드니켈과 리튬인산철(LFP) 등 중저가 제품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규모 ESS 수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 ESS 매출은 상반기보다 46% 증가할 것"이라며 "전기차 사업은 미국 공장의 낮은 가동률에도 유럽형 미드니켈, 리튬인산철(LFP) 물량 확대와 원통형 출하 호조로 매분기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대한항공, 임단협 마무리

최근 산업계에서 성과급 등을 둘러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한항공 노사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최종 합의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2026년 임단협 조인식을 열고 임금 총액 기준 2.5% 범위 내 기본급 인상과 통합 특별 공로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반직·기술직·객실승무원 직원의 직급별 기본급은 지난 4월 1일부터 임금 총액 기준 2.5% 범위 내에서 인상된다. 또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과정에서 임직원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 1인당 200만 원의 특별 공로금을 오는 12월 10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승객 및 휴가 제도 개선, 직원 지원 체계 정비, 직원 항공권이



대한항공이 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왼쪽)과 조영남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 /대한항공

용 기준 확대 등 근무환경과 복리후생 개선 방안에도 합의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성공적인 통합 대한항공 출범과 글로벌 네트워크 캐리어로의 안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노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G AI연구원-코스콤, 금융 AI 서비스 개발 '맞손'

한국 주식시장 예측·분석 서비스

AI 기반 투자정보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LG AI연구원이 코스콤과 손잡고 한국 주식시장에 특화된 금융 AI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국내 금융 데이터와 AI 예측 기술을 결합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고도화된 주가 예측·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LG AI연구원과 코스콤(KOSCOM)은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AI 기

반 한국 금융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윤창현 사장, 이창진 전무 등 코스콤 경영진과 임우형 공동 연구원장, 이화영 사업개발부부장 등 LG AI연구원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LG AI연구원의 AI 예측 기술을 적용한 금융 AI 에이전트 '엑스원 BI'에 코스콤의 금융 데이

터를 결합해 한국 주식시장에 특화된 AI 예측·분석 서비스를 구축한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주식시장에서는 예측의 정확도만큼이나 AI가 왜 그런 결과를 제시했는지 설명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LG의 AI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분야의 AI 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